

우리 종단을 말한다 |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

총무원장 지공 스님

자각각다·각행원만 가르침 구현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종정 봉해)은 일불 스님이 1988년 9월 16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각각다(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일불선원 대법당에서 창종한 종단(1991년 종단 등록)이다. 현재의 총 본산은 세계 최대 동굴법당으로 영국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는 천애자연을 품은 도량, 봉황산 일봉사(경남 의령군 궁유면 평촌리 175번지)이다.



본 종의 개조 스님인 일불 존자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거쳐, 1969년 태국 탑플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6년까지 세계 각국 유명 대학에서 126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내 최고의 석학 스님이다. 또한 1965년 한국불교 최초로 해외(미국) 포교사 임명장을 받은 국내 최초의 해외포교사이기도 하다. 1960년대부터 포교사업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는 동시에,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일불선종회(현 종단의 전신) 시절인 198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일불상장대학원의 설립취지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처님의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근비이념을 구현하는 전문가를

일봉사, 세계 최대 동굴법당 기네스 등재 승가교육으로 모든 이 불성 찾도록 포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 1965년 미국을 시작으로 활발한 국·내외 포교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포교 활동의 정신을 그대로 주창하고 있는 종단이 바로 (재)일불선교종(www.ilbun.org)이다. 1996년 열반에 들 때까지 일생을 불법 전파에 힘썼던 개조 스님의 뜻을 이어 받아 현재 종단소속 법사 1500여명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중 포교에 진력하고 있다.

본 종은 직지인심(直指人心)·견성성불(見性成佛)·전법도생(傳法度生)을 종지로 국태안민(國泰安民)에 힘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극관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은

양성하는 것이 대학원의 목적이다. 이타의 보살행으로 인류평화와 불교증흥에 기여하고, 나아가 확고한 호국관과 생활불교관을 정립해 현대 불교가 지향하는 유능한 불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일불상장대학원은 △지혜심(知慧攝心) △각행원만(覺行圓滿) △전법도생(傳法度生)을 원훈으로 지칭하고 있다.

현재 본 종단은 해마다 승가교육을 정례화하고 화합과 안정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기 위해 총본산인 일봉사에 '강원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불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총무원 (02)998-8161

정리=김진성 기자

지구촌 재가불교의 실천방향 모색

총지종, 10월 16~20일 제2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지난해 10월 열린 제1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인사들.

재가불자는 그동안 불교를 외호하는 역할로만 인식됐다. 수행 등 불교 전반에서 출세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재가자 위상 재정립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지종(총리원장 원송)은 10월 16~20일까지 서울과 강원도 원주시 등지에서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을 주제로 제2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에는 박광서 교수(서강대), 성태웅 교수(건국대), 원병관 교수(강원대) 등 국내 석학과 프란츠 그슈윈트 박사(독일, 전 핀란드 교수)를 비롯한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16개국 30여 재가불자 지도자 및 재가불교운동관련 학자와 스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는 16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 대주제 발표, 18일 강원도 원주시와 상원사에서 템플스테이 활동과 주제별 토론회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19일 서울로 돌아와 한국문화포럼과 전통문화공연 관람도 한다.

대회조직위원회 화령 정사(총지종 중앙교육원 원장)는 "한국불교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재가불교의 철학 정립과 재가불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국제교류를 확대하고자 대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의 출가자 또는 학

자간 교류가 아닌 일상적 국제교류를 이루겠다"며, "재가불자들이 자신의 철학과 역할을 정립한다면 한국불교 증흥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화령 정사는 "제1회 대회가 재가불자간 상호 소개 수준이었던데 비해 이번 대회는 ▲재가불자의 철학 ▲근대 재가불교 지도자들 ▲재가불자들의 협력방안 등으로 주제를 세분화해 실질적인 논의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총지종은 매년 국제재가불자불교대회를 정례화해 지구촌 재가불자들의 단결과 상호협력력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생활불교종단인 총

지종을 전세계에 홍보해 종단 위상 제고와 포교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화령 정사는 "대회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실천돼 재가불자들이 사회평화와 공존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며, 재가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제1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는 세계 10개국 재가불교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7년 10월 19~23일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회관에서 개최됐다.

(02)552-1080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평창 대흥사, 대불보전 낙성

10월 18일, 전통 목조양식...4년만에 회향

천태종 평창 대흥사(주지 국성)가 4년여간의 불사를 마치고 10월 18일 오전 대불보전 낙성 및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한다.

이번에 낙성되는 대불보전은 총면적 178㎡(약 54평) 규모로 정면 5칸·측면 3칸의 전통 목조양식으로 건립됐다. 비로자나부처님을 주불로 삼존불을 봉안했으며, 후불 탱화는 부 단청은 천연 도료를 사용해 화려함과 전통을 조화시켰다.

대흥사는 1969년 상월 대조사로부터 사찰명을 받았으며, 1980년 20

평 규모의 법당으로 창건됐다. 신도증가와 건물 노후로 법당 증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4년 10월 대불보전 건립불사가 시작됐다. 대불보전 불사 기간 동안에는 2004년 낙성된 백화당(白華堂) 4층에 법당을 조성해, 700여 신도들의 신생활동 공간으로 사용했다.

대흥사는 사찰 부지가 2만3천㎡에 이르는 만큼 향후 일주문, 사천왕문, 종각 불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전통사찰의 풍모를 갖추게 계획이다. (033)333-2435

김성우 기자

태고종, 33기 합동득도 입재

행사 46명, 10월 24일 선암사서 수계식



9월 30일 열린 태고종 제33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입재식.

태고종 제33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입재식이 봉행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9월 30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남녀 행사 46명과 행사 교육을 담당할 습의사, 총무원 집행부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3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재식에서 운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부터 여러분은 세속의 삶을 잊고 성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서, "본 종의 승려이자 종도로서 사명감을 갖고 정진할 수 있는 올곧은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우 기자

699호 대한불교미타종 총무원장 '해암' 스님은 '회암' 스님의 오기입니다.

천태 중부어린이 '체육 통해 화합 한마당'

9월 28일 이천 운동장에 어린이·신도 1000명 참석

천태종 총무원(총무원장 정산)은 9월 28일 경기도 이천 장화사 운동장에서 중부지역 23개 천태사찰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중부지역 천태 어린이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천태어린이 및 신도 1000여 명이 참여해 청룡·황룡·코끼리·사자팀 등 총 4개 팀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황룡팀(춘천 삼운사, 분당 대광사, 수원 용광사, 홍천 강릉사, 인천 활동사, 이천 장화사)이 우승을 차지했다. 2위부터는 코끼리팀, 사자팀, 청룡팀 순. 단체 출발기는 29개를 기록한 제천 삼천사, 400m 계주는 안산 월강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선수 입장으로 시작한 이날 체육대회에서 교무부장 유정 스님은 "기

성세대는 천진한 어린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희망을 찾는다"며 "우리 불교가 어린이를 교육하는 목표는 이 같은 천진성과 순수성을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고 키워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날 체육대회는 오전에 팀 피구와 단체 줄넘기가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터널 통과와 풍선 터뜨리기, 돼지말이, 날오는 양탄자 등의 순환식 명랑경기, 사철별 400m계주, 대동한 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한 번외경기인 림보, 양궁다트, 캐리커츄, 가위바위보 팽팡치, 달려라 굴렁쇠 등은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해 주석상품을 타기는 등 인기를 끌었다. 김성우 기자

천태종 관문사

'관음정진 100만독' 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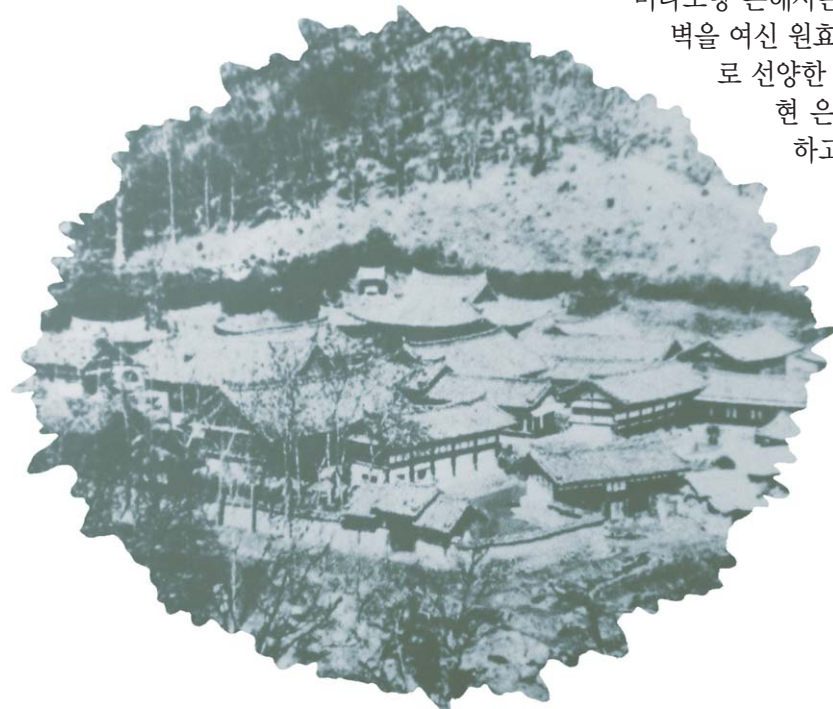
매일 8시간씩 55일간 운영정진하는 관세음보살 독송 캠페인 시작됐다.

천태종 관문사(주지 정산)는 9월 24일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층 옥불보전에서 '관음정진 100만독'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에서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매일 6시간 이상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불교 증흥을 이끈다는 사명감으로 용맹정진하라"고 법문했다.

관음정진 100만 독송은 11월 17일까지 매일 밤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진행된다. (02)3460-5300 조동섭 기자

팔공산 은해사 제1199돌 開山大齋



미타도량 은해사는 서기 809년 신라 헌덕왕 원년에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셨으며, 한국불교의 새벽을 여신 원효(元曉)스님, 우리 문자의 기틀을 마련하신 설총선생, 민족의 자족·자존·자주역사를 최초로 선양한 삼국유사를 지으신 일연선사(一然禪師) 등 삼성현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 도량입니다. 현 은해사는 조계종립 승가대학원과 3개의 선원을 운영하여 인재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수립장을 운영 선진 장례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산대재 보살계 - 만등불사 대법회 안내

■ 2008년 10월 11일 토요일

• 오후 3시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차례제 - 부도전

■ 2008년 10월 12일 일요일

• 오전 10시 30분 헌공(불교전통 의식시연)
• 오전 11시 30분 개산법요식 • 오후 7시 저녁 예불 및 만등 점등식

▶ 동참금 : ★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 접수처 : 은해사 (054)335-3318-9, FAX (054)335-0293
은해사 교구 각 말사

※ 개산대재 당일 오전 차량운행 시간 안내

- 동대구역 육교 밑 8시 출발 → 반야월 → 하양 → 은해사
- 포항역 7시 30분 출발 → 영천 → 은해사

은해사 수립장 안내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섭리에 근거한 수립장은 유골분을 지정된 나무아래에 봉안하는 환경 친화적 장례문화로 국내 최초로 은해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의미하는 소나무와 숲에서 고인은 자연과 영원히 동화되고 유족들은 고인의 넋을 기리며 나무와 숲을 가꾸는 것으로 자연과 인간,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고 소통하는 친 환경적 장례입니다.

www.surimjang.co.kr

전화상담 : (054)335-0566